



## 금감원, K-IFRS 주요이슈 설문조사 실시

최 원 선임연구원

■ 금감원은 2011년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528개 기업을 대상(응답률 31.5%)으로 K-IFRS (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) 회계처리 주요이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.

- 실무상 논란이 예상되는 K-IFRS 회계처리 이슈 29개 항목을 발굴하여 주요 쟁점사항을 안내하는 한편, 향후 감독 업무에 참고하기 위한 회계처리 현황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함.

■ 설문조사 결과 일부 기업은 K-IFRS와 K-GAAP(기존 회계처리기준) 간 회계처리 방법이 상이한 경우 기존 K-GAAP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, K-IFRS의 명시적 규정이 없어 판단을 요하는 경우 기업 간 회계처리 방법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남.

- 일부 기업의 경우 새로운 기준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K-IFRS와 K-GAAP의 회계처리가 상이한 연차휴가, 공사부담금 등에 대한 회계처리를 K-GAAP을 준용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남.
- 영업손익의 경우 설문조사 응답 기업 중 43.7%가 기존 K-GAAP을 준용한다고 답변한 반면, 나머지 56.3%는 자체 판단에 따라 공시한다고 응답하여 기업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남.
- 종속회사 중도매각 시 비교표시 전기재무제표<sup>1)</sup>와 관련한 설문항목의 경우 연결재무제표가 47.5%, 개별재무제표가 40%, 별도재무제표가 12.5%로 나타나 기업 간 비교가능성이 제고되도록 주식공시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.
- 골프장회원권의 경우 회원권 성격에 따라 금융자산, 무형자산 등으로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는 기업은 6.5%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.
- 전환상환우선주의 경우 구성요소별로 부채 또는 자본으로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하나, 응답 기업 중 65.4%가 전액 부채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남.

(K-IFRS 회계처리 주요이슈 설문 결과 및 대응방안, 금감원, 10/10)

1) 전기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있었으나 당기 매각 등으로 종속회사가 없는 경우 비교대상 전기재무제표.